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4. 6 ~ 4. 12

전남농업정보

28
VOL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수급 동향

양파·대파 가격 및 생산 동향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양념채소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강진 특산물 '여주 엑상차' 미국 수출길

저비용·고효율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양파 기계화 기술 개발에 나섰다

정책동향

농관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해외 농업정보

베트남,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허용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음.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3월 중·하순에 출하될 저장양파가 4월 상순까지 연장 출하되고, 조생종 양파 출하도 4월 이후로 지연되어 3월 중하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폭 둔화
- 신안·진도군 겨울대파 출하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일평균 출하량이 증가하였고, 중·하품 출하량이 많아 상품과 중품 간 가격 차이는 전월에 비해 큼
- 올해 양파가격 꺾춤(전년대비 2배가량 상승)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배추, 무, 당근

- 배 추 : 월동저장배추 및 시설봄배추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지만 월동저장배추가 평년보다 많아 배추 가격은 전월보다 높고 평년보다 낮은 5,000~6,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월동무 저장입고작업 지연에 따른 산지출하량 증가로 전월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8천~9천원/18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겨울저장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 전망

▶ 양념채소 : 양파, 대파

- 양 파 : 양파 4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조생양파 출하지연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은 600~650원/kg 전망
- 대 파 : 대파 4월 도매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 증가로 평년과 비슷한 1,300~1,400원/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광남일보, 한국농어민신문)

- ▶ 강진 특산물 '여주 액상차' 미국 수출길
- ▶ '딸기수출연구사업단' 발족...수출용 신품종 딸기 개발에 10년간 190억 투입
- ▶ 해외 소비자 입맛 맞춘 다양한 김치 개발을
- ▶ 농식품 수출 기본계획 수립 농장 '원성 자자'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양파 기계화 정식 기술개발에 나섰다
- ▶ 이제는 딸기도 우량 보급묘가 필요한 시대
- ▶ 해남군, 안토시안 빨간배추 대체작목 부상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농관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지원
- ▶ 2014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3천 톤, 정부로 이관
-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 '스마트 팜' 농가, 현장 기술지원으로 영농기술도 스마트하게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베트남, 수율확대 및 수입감축을 위해 유전자변형 옥수수재배 허용
-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미국 대평야 건조한 기후 및 금주 무더한 날씨로 급등
 -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가격 및 대두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강보합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USDA 분기별 재고 및 파종보고서 영향으로 소폭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유기농쌀로 부농 이룬 '장흥 우렁이 총각'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 친환경 기능성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 신청기한 : '15. 4. 10.(금)한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500백만원(지특 250, 시군비 50, 자담 200)
 - 사업내용 :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지원
 - 지원자격 : 10ha이상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생산·유통하고자 하는 단체
- ▶ '14년산 콩 보급종 추가신청 접수
 - 신청기간 : 3. 23. ~ 4. 10.

- 신청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품종 : 대원, 태광, 풍산나물 등 7개 품종 700톤
 - 장류 및 두부용 : 6개 품종(대원, 태광, 우람, 대풍, 천상, 연풍), 610톤
 - 콩나물용 : 1개 품종(풍산나물), 90톤
- 공급가격 : 17,400원/5kg
- 종자공급 : 4. 1. ~ 5. 10.까지(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

▶ '14년산 벼 보급종 개별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홈페이지(www.seed.go.kr) 및 전화신청
- 대상품종 : 황금누리, 추청, 삼덕, 남평, 일미 등 13품종 1,200여 톤
- 종자공급 : 종자대금 입금 후 택배를 통해 농가에 공급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3. 26. ~ 4. 15.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된 가축 사육농가
- 사업비 : 206억원(보조금 6, 융자금 200)
- 지원기준
 - 보조지원(준업농~전업농 규모)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이차보전(기업농규모) : 융자 8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4. 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6)	전주 (3/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1,140	43,600	41,367	↓ 6.4	↓ 1.4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36,000	142,000	185,867	↓ 4.2	↓ 26.8
	고구마(밤)	10kg	28,800	28,000	27,400	19,000	24,387	↑ 51.6	↑ 18.1
	감자(수미)	20kg	35,200	33,200	34,600	17,600	25,413	↑ 100	↑ 38.5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00	500	470	360	1,171	↑ 38.9	↓ 57.3
	양배추	10kg	6,000	6,100	6,240	3,810	5,620	↑ 57.5	↑ 6.8
	오이(다다기계통)	15kg	32,667	35,333	47,667	42,333	43,083	↓ 22.8	↓ 24.2
	애호박	8kg	18,400	18,600	24,520	23,200	20,783	↓ 20.7	↓ 11.5
	토마토	10kg	29,600	30,000	29,520	32,100	34,757	↓ 7.8	↓ 14.8
	무(월동)	1kg	500	500	480	440	490	↑ 13.6	↑ 2.0
	당근	20kg	22,200	21,000	20,600	23,150	27,103	↓ 4.1	↓ 18.1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50,000	804,000	↑ 26.2	↑ 2.0
	풋고추	10kg	38,000	52,000	99,160	60,400	51,273	↓ 37.1	↓ 25.9
	마늘(난지)	10kg	34,600	34,600	35,120	27,400	37,003	↑ 26.3	↓ 6.5
	양파	1kg	670	640	682	640	903	↑ 4.7	↓ 25.8
	대파	1kg	1,450	1,470	1,576	1,075	1,550	↑ 34.9	↓ 6.5
	파프리카	5kg	26,400	27,800	25,280	29,200	34,097	↓ 9.6	↓ 22.6
	방울토마토	5kg	23,000	23,200	15,720	24,350	24,057	↓ 5.5	↓ 4.4
	딸기	1kg	7,900	8,600	9,640	8,050	7,793	↓ 1.9	↑ 1.4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3,800	63,800	62,160	83,800	76,951	↓ 23.9	↓ 17.1
	배(신고)	15kg	39,800	40,400	37,800	45,200	45,511	↓ 11.9	↓ 12.5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4/6)	전주 (3/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8,000	534,000	569,567	↓ 1.1	↓ 7.3
	들깨	45kg	426,000	426,000	427,600	450,000	378,533	↓ 5.3	↑ 12.5
	새송이버섯	2kg	8,400	8,600	8,740	8,050	8,525	↑ 4.3	↓ 1.5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458	6,540	6,444	6,022	6,021	↑ 7.2	↑ 7.3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28	1,741	1,884	1,883	1,666	↓ 2.9	↑ 9.7
	닭고기	1kg	5,445	5,340	5,549	5,831	6,287	↓ 6.6	↓ 13.4
	계란(특란)	10개	1,968	1,951	1,949	1,958	1,842	↑ 0.5	↑ 6.8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3	2,287	↑ 0.2	↑ 11.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4. 6.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590 천원	4,801 천원	4,233 천원	↓ 4.4	↑ 8.4
	거세	5,336 "	5,279 "	5,258 "	↑ 1.1	↑ 1.5
송아지 (6~7월)	암	2,075 "	2,126 "	1,627 "	↓ 2.4	↑ 27.5
	수	2,516 "	2,550 "	2,215 "	↓ 1.3	↑ 13.6
육우(600Kg)		3,319 "	3,338 "	2,584 "	↓ 0.6	↑ 28.4
젖소수송아지(7일령)		114 "	95 "	16 "	↑ 20	↑ 612.5
돼지(110kg)		398 "	371 "	378 "	↑ 7.3	↑ 5.3
육계(원/kg)		1,736 원	1,793 원	1,473 원	↓ 3.2	↑ 17.9
계란(원/특란10개)		1,345 원	1,351 원	1,299 원	↓ 0.4	↑ 3.5
오리(원/kg)		2,500 원	2,285 원	2,375 원	↑ 9.4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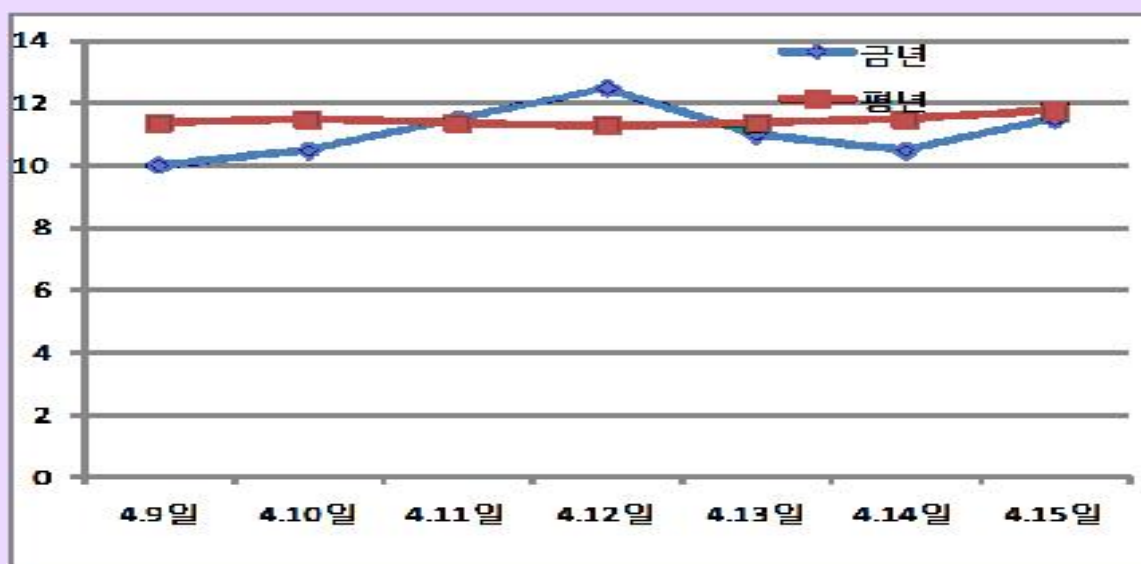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1.1	11.5	-0.4	15.7	17.1	-1.4	6.4	7.4	0.3	2.0
4. 09.(목)	10	11.4	-1.4	14	16.9	-2.9	6	7.4	1.4	2.3
4. 10.(금)	10.5	11.5	-1	15	16.9	-1.9	6	7.5	1.5	2.6
4. 11.(토)	11.5	11.4	0.1	17	16.9	0.1	6	7.4	1.4	2.6
4. 12.(일)	12.5	11.3	1.2	17	16.9	0.1	8	7.3	0.7	2
4. 13.(월)	11	11.4	-0.4	15	17.1	-2.1	7	7.2	-0.2	1.8
4. 14.(화)	10.5	11.5	-1	15	17.2	-2.2	6	7.3	-1.3	1.5
4. 15.(수)	11.5	11.8	-0.3	17	17.6	-0.6	6	7.4	-1.4	1.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수급 동향

양파 · 대파 가격 및 생산 동향

□ 가격 동향

- 양파 3월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상순 737원(중품 525원)에서 중·하순 677원(중품 524원)으로 하락하였다. 평균 도매가격은 696원(중품 523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 중·하순에 출하될 저장양파가 4월 상순까지 연장 출하되고 조생종 양파 출하도 4월 이후로 지연되면서 3월 중·하순 출하량은 감소하였다. 3월 중·하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었다.
- 3월 대파 상품 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1,300원(중품 991원)으로 전월(상품 1,508원)과 평년(상품 1,558원) 대비 각각 14%, 17% 낮았다. 순별 도매가격은 상순 1,380원(중품 1,073원)에서 하순 1,170원(중품 862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신안·진도군 겨울 대파 출하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일평균 출하량이 증가하였고, 중·하품 출하량이 많아 상품과 중품 간 가격 차이는 전월에 비해 커졌다.

□ 생산 동향

- 2015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조생종이 전년보다 1% 증가한 2,018ha,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9% 감소한 19,882ha로 추정된다. 2015년산 조생종 양파의 생육상황은 제주 한림읍, 한경면의 작황이 양호하였으며, 대정읍은 고자리파리 피해로 결주가 약 30% 발생하여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안과 함평지역 조

생종 양파의 생육 속도는 느린 편이나,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생종 양파의 수확은 저장양파가 많고 생육 속도가 다소 느려 4월5~10일경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 2015년산 조생종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보다 4%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9% 많은 6,578kg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3% 적은 13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5년산 중만생종 양파의 영남지역 생육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식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영남지역은 12월 초 한파 피해로 뿌리활착이 지연되는 등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남지역은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년단수(6,539kg/10a)를 적용한 2015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2% 많은 130만 톤으로 전망된다.

- 4월 대파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지만 단수는 5% 감소하여 출하량은 4% 증가할 전망이다. 신안·진도군 겨울대파는 후기 작형 정식을 위해 상순에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 부안지역 봄대파 출하가 시작되고 출하 대기 면적이 많은 영광지역 출하가 예정되어 출하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겨울대파는 출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작황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광 일부 지역에서는 뿌리썩음병이 관찰되어 단수는 5% 감소할 전망이다. 5~6월 출하면적은 호남지역의 경우 겨울대파 출하가 4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 시설대파 면적은 소폭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올해 양파가격 갱충

- 재배농가 ‘함박웃음’ -
 - 재배면적·생육 저조 -
 - 지난해보다 두배 올라 -
- 올해 양파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두배 가량 올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일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양파 조생종의 발떼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거래 가격이 평당 8,000~1만2,000원에 형성되고 있다.
- 지난해 평당 거래가격이 5,000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2배가량 오른 셈이다.
- 이처럼 조생종 거래가격이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이유는 올해 전국 재배면적(2만1,900ha)이 지난해(2만3,911ha)보다 줄어들고 생육 저조로 올해 생산량(143만t)도 지난해(159만t)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6월께 출하하는 중만생종 발떼기 거래도 활발해지고 거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교해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대폭 늘어 조생종 가격이 폭락하면서 중만생종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올해는 중만생종 평당 발떼기 거래 가격이 7,000~8,000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다만, 중만생종 양파 작황은 4~5월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유동적이다.

- 양파재배 농민 이모(54·무안군)씨는 “지난해에는 양파 가격이 폭락에 농민들이 고충을 겪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회복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양파 재배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다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건비는 일당이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양파 수확과 재배 특성상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기계화 확대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편 전남은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51%를, 무안군은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매일('15. 4. 2.)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당근

○ (배 추)

- 월동저장배추 및 시설봄배추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지만 월동저장배추가 평년보다 많아 배추 가격은 전월보다 높고 평년보다 낮은 5,000~6,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월동무 저장입고작업 지연에 따른 산지출하량 증가로 전월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8,000~9,000원/18kg 전망

○ (당 근)

- 당근 가격은 겨울저장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 전망

양념채소 : 양파, 대파

○ (양 파)

- 양파 4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조생양파 출하지연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많아 평년보다 낮은 600~650원/kg 전망

○ (대 파)

- 대파 4월 도매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 증가로 평년과 비슷한 1,300~1,4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강진 특산물 '여주 액상차' 미국 수출길

- 남도농산, 삼진글로벌넷과 유통 제휴...국내 마트·백화점 입점도 -
- 강진 특산물인 여주로 만든 액상차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 강진군은 지난 30일 작천면에 소재한 (주)남도농산이 국내 유통업체 삼진글로벌넷과 손 잡고 여주 액상차 5000만원 어치를 미국 서부지역 마트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 삼진글로벌넷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미국에 자체 대형마트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로, 연간 여주 액상차 5억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여주 액상차는 (주)남도농산이 군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 9월부터 연구를 시작한 이후 1년여만에 여주 액상차와 티백차 시제품 제작, 사업화에 성공했다.
- 여주 특유의 쓴맛을 제거해 남녀노소 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고 PET제품으로 음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 남도농산은 아울러 전국의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백화점에 4월 초 납품할 예정이며, 인터넷쇼핑몰 진출과 함께 지역 단위농협, 수도권 대도시 및 중부휴게소 입점을 추진해 올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 강진원 군수는 "먹는 인슐린이라 불리며 특화작물로 각광받던 여주의 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까지 진출했다.
- 앞으로도 지역에 맞고 향후 시장개발 가능성이 큰 작물들을 개발해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 강진 여주는 현재 30농가 6.2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벼농사의 6배에 달하는 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출처 : 광남일보

■ '딸기수출연구사업단' 발족...수출용 신품종 딸기 개발에 10년간 190억 투입

- 정부가 딸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10년간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딸기 수출전략품종 육성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국내 딸기 수출 R&D 사업을 주도할 '딸기수출연구사업단'이 발족했다. 사업단 발족은 지난해 6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의 '딸기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현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수출전략품종 육성 및 안정적인 생산과 보급을 위한 R&D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사업단장은 김승유 원예원 채소과 딸기연구실장이 맡는다. 김승유 단장은 “매향은 수량이 적고 기형과 발생률이 높아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당초 내수용으로 육성된 설향은 경도가 낮아 장기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수출용 신품종 딸기 개발 및 보급을 핵심과제로, 사업단이 딸기 수출 R&D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단은 크게 △글로벌 딸기 품종 개발 △수출 품종 우량묘 대량생산 및 보급 △수출현장 애로 해결 등 분야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며, 각 분야에 따라 수출촉진팀(10명)·품종육성팀(7명)·재배기술선진화팀(13명)으로 운영된다.
- 규모는 외부자문단(5명)을 포함해 35명 수준. 각 팀은 농진청·원예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민간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며, 외부자문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딸기수출협의회, 딸기수출생산자협의회 등이 포함됐다.

- 특히 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딸기 수출 R&D 사업에는 연간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2022년까지 총 8년 동안 40억원의 예산(매년 5억원)을, 농진청이 2024년까지 10년간 150억원(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 김승유 단장은 “지속적인 R&D 사업으로 수출 500만 달러 이상의 주력품종을 3개 이상으로 확대해, 2022년 딸기 수출 1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해외 소비자 입맛 맞춘 다양한 김치 개발을"

- 김치업체 경쟁력 강화 워크숍 -

- 김치 수출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염과 덜 매운 맛, 유기농김치 등 해외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제품 다변화로 새로운 수요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세계김치연구소는 3월 31일~4월 1일까지 ‘제4회 중소·중견 김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연·관 워크숍’을 개최해, 국내 김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지자체와 (사)대한민국김치협회 및 다수의 김치 수출업체들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내수 및 수출용 김치의 품질개선 방안’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애 세계김치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홍콩 등 최근 김치 수요가 늘고 있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미국과 홍콩 모두 ‘매운 맛의 배추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 하지만 응답자들 중 다수는 덜 짜거나 덜 매운 맛의 김치와 젓갈이 들어있지 않은 김치, 유기농 재료로 만든 김치, 채식주의자용 김치, 할랄(Halal)·코셔(Kosher) 인증 김치 등 신제품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미애 선임연구원은 “최근 들어 유기농·저염·채식 등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관심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김치 제품에도 이 같은 요구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며 “앞으로의 김치 수출 저변 확대의 관건은 신제품을 요구하는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미애 연구원은 “해외 소비자들이 김치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육류와 면류, 생선류 요리를 주로 꼽은 만큼, 김치와 궁합이 맞는 해외 음식 및 퓨전음식을 꾸준히 발굴해 김치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진진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일본 중심의 김치 수출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해외 유명 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김치 및 김장문화 홍보와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활용한 김치강좌를 통해 잠재 소비층을 적극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농식품 수출 기본계획 수립 능력 ‘원성 자자’

- 1/4분기 지나도록 수립 감감...정부 수출사업 ‘잠정 중단’ -
- 농산물 수출 시기 놓치고·수출업체 지원 길 막혀 ‘발동동’ -
- 올해 농식품 수출 분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이 1/4분기가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아 정부의 해외 판촉 지원, 자금지원, 물류비 지원 등 각종 농식품 수출 정책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이에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의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 농식품 수출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이 올 한 해 동안 농식품 수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방침을 담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 시행규모·지원방향 등이 결정된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실제 사업실행이 가능한 만큼 예년의 경우 연초인 1월, 늦어도 2월에는 농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해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4월이 되도록 수출 분야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에 개최되는 해외박람회 참가를 제외하고는 수출 분야 정부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 농식품부의 수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현장의 수출 농식품 생산자 및 수출업체다. 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수출 농식품의 해외 판촉. 특히 딸기 등 1/4분기 생산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A' 수출업체 담당자는 “신선농산물 판촉의 경우 시기가 중요한데, 출하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소용이 없다”며 “사업 공고가 나오길 기다리다 벌써 수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해외 판촉행사의 경우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데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 'B' 수출업체 관계자는 “올해는 수출실적 확대를 위해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보다 의욕적으로 나서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한

분기를 모두 보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 수출업체 및 생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인 수출 물류비 지급 또한 몇 달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농식품부의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미지급분까지 소급이 되겠지만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수출업체 및 생산자 입장에서는 한 시가 급하다. 여기에 수출 정책 자금 지원 계획도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 벌써부터 관련 기관에는 자금 확보가 시급한 수출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정장식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사무관은 “올해는 변화되는 제도가 많은데다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함께 만들다 보니 늦어진 감이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는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 하지만 농식품 수출을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기본계획 하나 제때 수립하지 못해 업계의 발을 묶어 놓은 현 상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양파 기계화 정식 기술개발에 나섰다

-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는 기계정식 육묘방법 곧 개발된다 -

- 최근 무안, 함평 등 일부 양파 주산지에 정식기가 보급되어 정식 시 생산비 절감이 90%정도 가능하지만 농가들은 기계정식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기계정식을 위해서는 기계정식 전용 트레이를 이용한 육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데 아직 육묘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육묘 성공률이 80% 정도이기 때문이다.
- 이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기계정식을 위한 트레이 육묘법 연구를 추진해 양파재배 농가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육묘를 해서 기계정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기계정식을 위한 육묘는 448구 전용 트레이에 코팅종자를 파종하여 토양과 격리시키는 뿌리억제망을 깔고 물관리와 3회의 시비관리, 2회 정도의 전엽작업을 거쳐 60일이 지나면 기계 정식기를 이용하여 정식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발아가 되지 않는 트레이 구멍이 있으면 기계정식시 결주가 되고, 관수시 트레이 육묘 상토가 패이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기계정식할 때 가장 중요한 묘소질은 모종이 직립되어 있어야 하고 뿌리의 매트가 잘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료주기 등의 관리가 까다롭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파 기계정식을 위한 트레이 육묘시 관수방법 개선, 전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비

관리 방법을 구명 하는 등의 연구를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한 후 개발된 육묘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양파 정식기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60일 미만의 묘를 정식할 수 있는 방법, 겨울 이상고온 등에 의한 생리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육묘일수 구명, 식부 깊이 구명 등 기계정식 재배기술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양파 기계정식이 보편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정효진 연구사는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이제는 딸기도 우량 보급묘가 필요한 시대

- 보급묘가 자가육묘에 비해 10~20% 수량 증수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 우량묘 보급을 위해 체계적인 자체 육묘관리 시스템 운영, 생산현장에 적용하면서 고품질 다수확과 함께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 되고 있다.
- 전남의 딸기 시설 재배면적은 707ha(전국 대비 10.2%)이며,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 보급률은 86% 정도이다. 신품종 보급률 향상으로 대외 로열티 부담액은 2013년 연간 2.8억원에서 2022년에는 0.5억원으로 매년 부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의 딸기 묘 소요량은 연 71백만주이나 80%가 자가육묘한 딸기 묘 사용으로 품종 고유의 순도가 떨어지고 바이러스, 탄저병 등의 발생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우량 딸기 보급묘(원원묘)를 증식하여 딸기육묘전문법인체에 매년 5만주 이상 보급하였다.

- 이러한 양질의 보급묘를 나주, 고흥지역의 농가에서 현장 실증한 결과, 보급묘가 자가육묘에 비해 초세가 좋고, 꽃대가 균일하고 뿌리발달과 과일형태 좋았다. 수량(10a)은 자가육묘(4,275kg)에 비해 보급묘(4,711~5,165kg)가 10~21% 증가되어 농업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딸기 우량묘 보급을 위해 체계적인 육묘관리 시스템 구축과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한 실정에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육묘신산업 창출을 위한 「육묘산업 발전대책」 마련으로 육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양질의 규격묘 생산과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원예연구소 서종분 박사는 ‘체계적인 육묘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예종묘품질인증제」를 조기 도입하여 육묘의 전문화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해남군, 안토시안 빨간배추 대체작목 부상

- 겨울배추 매년 과잉생산 농가 어려움 해소 올해 99만m² 본격 재배 나서
- 전국 겨울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이 매년 과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안토시안 빨간배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실제 성진영농조합법인(대표 안종옥)에서 마련한 안토시안 빨간배추 설명회가 해남예술문화회관 다목적실에서 관내 배추재배 농가

를 비롯해 이상조 전 밀양시장, 고재천 웅진식품 사장, 임용표 충남대학교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빨간배추 재배방법, 특징, 수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이번 설명회에서 기능성 배추 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차별화된 배추생산으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대만 등 수출이 기대되는 안토시안 빨간배추의 고수익 전망에 대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 특히 안종옥 성진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지난해 시험 재배한 안토시안 빨간배추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총 99만^m² 면적 중 33만^m²은 성진영농조합법인, 66만^m²은 사단법인 땅끝해남 귀농귀촌협회가 각각 재배에 나설 계획이다.
- 해남에서 처음으로 안토시아닌 배추를 시험 재배한 결과 지난해 3천300^m²에서 실험재배 했으며 수확 후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식품성분 분석결과 노지포장에서 안토시안이 29.75~44.13(mg/100g), 일반노지에서는 17.18~21.98(mg/100g) 검출됐다.
- 당시 배추값 폭락으로 대부분 1천원 정도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5천원에 판매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 안 대표는 “올해 생산된 안토시안 빨간배추는 수출과 더불어 국내 홈쇼핑 등지에 가공 김치 형태로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며 “새로운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안토시안 빨간배추는 항산화 효과(노화 방지)와 시력 개선, 혈관 질환 예방, 소염 및 살균 작용, 인슐린 생성량 향상, 기억력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농관원,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과 농협중앙회(경제대표이사 이상욱)는 2015. 3. 31.(화) 농협 중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지원으로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로컬푸드 직거래 활동은 그 동안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중소농 판로 확보 애로, 유통비용 과다 문제를 해결하여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판매, 구매 수요를 확대함과 동시에 생산·가공·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관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12) 3개소 → ('14) 71(농협51) → ('15) 100(농협75)

○ 로컬푸드 직거래는 중소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것을 수확·포장· 가격 결정·판매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 필요가 있다.

□ 농관원과 농협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농관원은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과 협력하여 계약농가에서 출하 예정인 농산물 3,000건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은 직매장 출하를 차단한다.

- 또한,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국가인증농산물관리, 품질관리 등의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교육과 생산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 교육내용 : 농약안전사용, 친환경 및 GAP인증농산물 관리, 표준출하 규격 및 선별 요령 등

- 농협은 로컬푸드 직거래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계약농가의 품목, 출하시기 등 출하정보를 농관원에 제공하고 직매장을 현재 51개에서 75개소로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인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400 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관원 김대근원장은 “직거래 등 신유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핵심이다.”라며,

- “이번 협약으로 영세한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증가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우리 농식품의 항구적인 소비처로 자리 잡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14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3천 톤, 정부로 이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이던 2014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5천 톤 중 73천 톤을 3월 31일부터 정부로 일괄 이관한다고 밝혔다.

* 산물벼: 건조되지 않은 수확상태 그대로 매입한 벼(RPC, DSC가 건조하여 보관)

** 포대벼: 수분함량(13.0%~15.0%), 중량 등 벼 검사규격에 맞춰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한 벼

□ 정부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 중인 전국 399개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수 의향 조사에서 10개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약 2천 톤의 산물벼를 자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산물벼 인수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에 수확기 이후부터 3월(3.23일 기준)까지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등급별로 확정하였다.

< 공공비축 산물벼 등급별 인수 가격 >

(단위 :원, 조곡/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인도 가격	56,493	54,688	52,260	46,518

* 「201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요강」에 따라 매입가격 x 쌀값 변동률(3.5, 3.15 전국 산지쌀값 평균 / 10~12월 전국 산지쌀값)으로 산정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로 이관하는 73천 톤은 각 시·군의 정부양곡 창고로 이고하여 모두 정부 양곡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지리적표시 등록 -

□ '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이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쳐 전국적으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지역특산품이 96건으로 늘어 났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경기도 안성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3월 30일자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은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 등록절차 : 신청→심의→등록신청공고→이의제기 및 심의→등록공고

등록요건 : 품목의 유명성 및 역사성,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연관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 여부

□ 이들 품목은 앞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그 지역에서는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신청서류를 갖추 **농산물은 농관원, 임산물은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하면 된다.

□ 한편 농관원은 '02년 제1호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농산물 96건을 등록**하여 지역특산품의 품질향상 및 판로 확대, 생산농가 체험* 등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 '14년도 지리적표시 생산농가 현장체험 : 25회, 1,006명

- 지리적표시품 생산농가 중 선도 농가를 「스타팜(Star Farm)」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영양사, 언론인 등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난해 9월에는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물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a마켓**에 지리적표시품 전문 판매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아울러, 신규 등록단체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농식품 안심이’ 어플 다운 → 인증조회 → 인증번호 검색 → 지리적표시 등록 조회
홈페이지	농관원(www.naqs.go.kr) → 정보광장 → 인증농식품 정보조회 → 지리적표시 조회하기 → 지리적표시 농산물

* 농산물 등록건수: ('02) 1 → ('12) 83 → ('13) 90 → ('14) 93 → ('15.3.) 96

- 등록취소: 여주고구마, 안동포, 서산마늘(3건)

** 전체 등록건수: 167건(농산물 96, 임산물 51, 수산물 20)

□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6차 산업화를 더욱 촉진하게 되어 안정적인 농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 지리적표시품의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거짓표시, 혼합 판매행위 방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정부에서 엄정하게 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을 많이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 팜' 농가, 현장 기술지원으로 영농기술도 스마트하게

- 농식품부 현장기술지원단 가동, 세종 창조마을 교육 실시 -
- 경제혁신 3개년 핵심개혁과제[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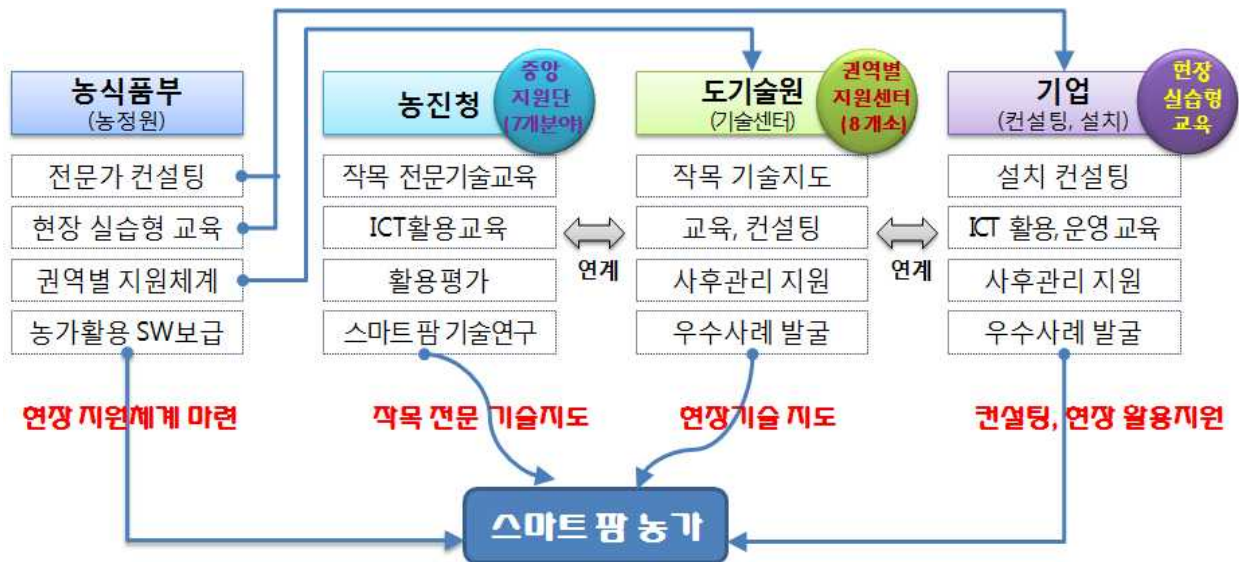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팜'을 현장에서 100% 활용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 농가의 영농기술과 스마트 팜 운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우선, 스마트 팜이 집단적으로 보급된 세종 창조마을(100농가)에 3월 31일 연동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의 재배교육 및 설치기업의 ICT 운영·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 '스마트 팜' 농가 현장지원은 농식품부, 농진청, 道농업기술원(市郡

기술센터) 및 민간의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교육,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 스마트 팜 현장 기술지원 >



① 시설원에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스마트 팜’ 도입 농가가 전문 재배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진청, 대학 등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양지원단’(28명)을 가동한다.
 - 중양지원단은 딸기, 토마토, 화훼, 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에 작물의 생산성·품질향상을 위한 선진 생육기술 전파,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 * 지원대상 : 6개작물(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장미, 국화, 백합), 융복합기술
지원내용 : 환경, 토양, 양액, 방제 등 재배기술 등
- 또한, 현장에서 ICT 전문가가 ‘스마트 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 현장 적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스마트 팜의 작동원리, 현장 관리·활용, 장애처리, DB활용 생육관리 등

- 농가가 기술교육 후에도 현장에서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물 재배와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현장 연계성을 강화되고 교육의 효과도 높아진다.

② 스마트 팜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현장기술 지도

- 농업현장과 가까운 道농업기술원(市郡기술센터)·기업 중심으로 ‘스마트 팜’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가 쉽게 접근하여 현장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 도원·시군기술센터에서 자체 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14:1개소→’15: 8개소)

- 또한, 작물재배 교육과 함께 스마트 팜의 운영 교육을 현장에서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ICT 실습형 교육농장***을 운영한다.

* ICT 융복합 실습형 교육농장(‘14:3개소→’15: 8개소)

- 농가는 실습형 교육농장의 교육과정을 통해 스마트 팜의 운영 능력을 배양하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③ 스마트 팜 도입 시, 전문가 현장지원

- 스마트 팜을 도입하는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 컨설팅기관 선정(4월), 스마트팜 신청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5월~)

- 농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 설치·운영 단계에서는 효율적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직까지 ICT에 익숙지 않은 농업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스마트 팜을 도입하려는 농가에는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다.

④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 사업설명회, 농업인 현장대회 등에서 스마트 팜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현장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기술센터 등을 통해 추가 우수사례 발굴 및 도입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시설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팜’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생산성·품질 향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이 공감하여 수요가 촉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민연태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스마트 팜’ 농가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운영·기술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청, 지자체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ICT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스마트 팜’ 운영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여 농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베트남, 수율확대 및 수입감축을 위해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허용

베트남은 사료산업에 쓰이는 옥수수 및 원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율확대 및 수입비용 감축을 위해 처음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허용하였다. 비유전자변형 형질보다 37.5%나 수율이 높으며 해충에 덜 취약한 유전자변형 옥수수 세 형질이 전국적으로 재배될 예정이다.

작년, 베트남은 옥수수 4.8백만 톤을 수입하는데 12.2억 달러를 소비하였으며 이는 2013년 수입물량 대비 19.3%나 증가한 수준이며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태국, 캄보디아라고 한다. 또한 이는 중국의 옥수수 수입물량 2.6백만 톤과 비교하여도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베트남은 낮은 옥수수 수율과 더불어 옥수수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옥수수 재배 면적이 확대되지 못하여 국내 옥수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약 1/3밖에 충족시킬 수 없었다.

작년, 베트남은 1.18백만 헥타르(2.9백만 에이커)에 대해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이는 2013년 대비 0.6% 증가한 수준이었지만 수확량은 5.2백만 톤으로 변화가 없었다. 베트남의 평균수율은 헥타르 당 4.4톤으로 인도의 2-2.5톤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최대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수율 10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3. 31.(시카고 선물거래소)

밀가격, 미국 대평야 건조한 기후로 급등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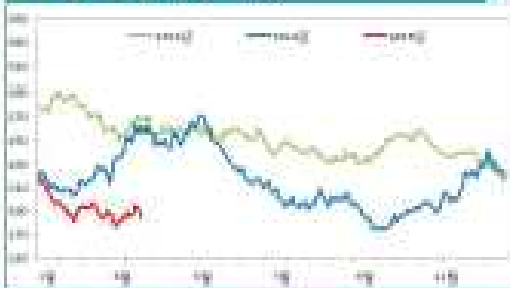
단위 : USD/bu

구분	기준일 (15.3.3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2)	2014 평균
밀	194.61	▲0.5%	190	216
옥수수	155.27	▲0.9%	151	164
대두	355.53	▲0.04%	365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작물연장물:WAB),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대두:1:1)을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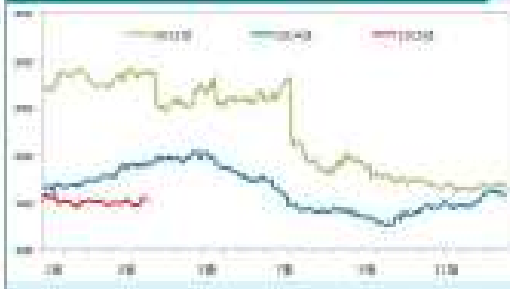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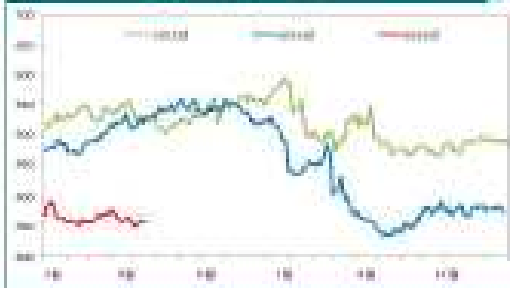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국 대평야 건조한 기후 및 급주 무더운 날씨로 급등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가격 및 대두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강보합 마감했음. 또한 화요일 발표된 USDA 분기별 재고 및 파종보고서 역시 가격상승에 추가적인 입박을 가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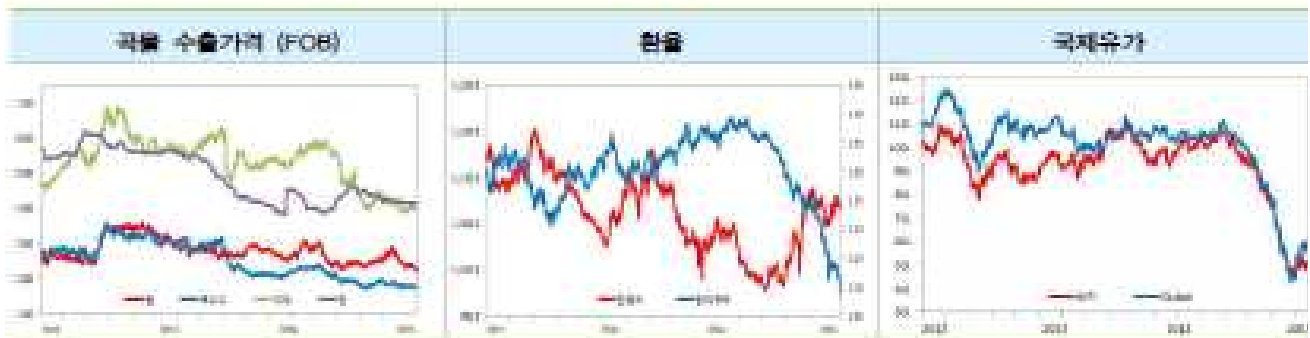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USDA 분기별 재고 및 파종보고서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음.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m01.krei.or.kr>

관련 사항

- 미국산 곡물가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이란 핵협상 타결 기대감, 미 부상지역 원유재고 증가전망 등으로 하락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일평균 ('15.2)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33	▼0.9%	236	261	284
	옥수수	181	▲0.6%	179	205	265
	대두	390	▼0.3%	401	501	556
	쌀	405	—	417	425	488
현물	원/달러	1,104	▲0.1%	1,098	1,053	1,095
	달러/유로	1,088	▼0.8%	1.14	1.33	1.33
국제유가 (USD/barrel)	WTI	47.51	▲0.1%	50.85	92.97	97.94
	Dubai	53.40	▲1.0%	56.05	96.64	105.32

주 1) 밀(US 99W Gulf, 옥수수(US 30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5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3.28(수출가격), '15.3.27(현물), '15.3.2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농협,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러시아 Sovcon에 따르면 2015/16년 겨울곡물의 11~12%가 불사했으며 평균치인 10%이하에 비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함.
-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3월1일 기준 농업회사의 곡물재고는 19.3백만 톤(전년대비 22%증가)이며 그 중 밀은 6.2백만 톤, 보리는 1.8백만 톤, 옥수수는 10.7백만 톤이라고 함.
- 태국 원당기업은 3월 현재로 미국산 옥수수 20,000톤, 대두 15,000톤을 구매할 계획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유기농쌀로 부농 이룬 '장흥 우렁이 총각'

- 부산 출신으로 호주 농업 연수까지 '준비된 농사꾼' -
- 역경 딛고 이유식용 쌀가루·유기농 쌀과자로 승부수 -
- 재배 과정부터 생산까지 공개...전남농기원, 창업지원 -
-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아이 쌀과자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되 쌀과자"
- 이 문구는 '한되' 박민재(30·전남 장흥 금성영농조합법인)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쌀과자 봉지에 적힌 글이다. 박 대표는 시중에 많은 쌀과자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과자는 찾기 힘들다며 그동안 유기농 쌀을 구매하던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유기농 쌀과자를 개발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전남 장흥의 '우렁이 총각' 박 대표가 생산한 쌀과자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고향은 부산, 살던 곳은 서울, 자란 곳은 장흥, 공부한 곳은 호주, 이처럼 이색적인 성장배경을 가진 박 대표는 현재 장흥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 박 대표와 장흥의 인연은 박 대표가 초등학교때 장흥으로 귀향한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시작됐다.
-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며 온몸으로 농사일을 배웠다.
- 한 순간도 한 눈 팔지 않고 농업고등학교, 농업 대학을 졸업한 그는 내친김에 호주로 농업 연수까지 다녀왔다.
- 박 대표는 우렁이 농법을 이용해 유기농 쌀을 재배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쌀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 박 대표는 시중에 많은 쌀과자가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과자는 찾기 힘들다며 그동안 유기농 쌀을 구매하던 고객들의 요청으로 쌀과자를 개발하게 됐다.
- 어려서부터 농사가 곧 생활인 삶을 살아왔으며 직업으로 농업을 택한 박 대표였지만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마찰을 자주 겪었다.
- 부모 자식간의 성격과 경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한때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 이 후 박 대표는 쌀을 판매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홀로서기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 1등급의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유통과 판매의 어려움에다 자연재해까지 맞보게 됐다.

▲ 한되 유기농 쌀과자

- 박 대표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도 일반 쌀과는 다를 바 없는 시장가격에 크게 실망했다.
- 또 자신이 생산한 쌀을 누가 먹는지조차 모른 채 무조건 판매하는 방식에도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 이런 답답한 현실에 박 대표는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쌀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공략한 것이다.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단계별 이유식용 쌀가루와 유기농 쌀과자를 만들어 틈새시장을 개척했다.
- 이 과정에서 그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았다.
- 교육이 주는 유익함과 더불어 공감대가 형성되는 또래의 젊은 농업인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 더불어 쇼핑몰 구축,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SNS마케팅을 이용해 마케팅 환경을 개선하고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해 '우렁이 총각'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 박 대표는 사카린, 색소, 소금 등을 첨가하지 않고 유기농 원료만을 이용한 쌀과자를 생산했다.
- 그가 출시한 쌀과자는 이유식이나 어린이 간식용이며 50g 소포장 봉지로 구성돼 있다.
- 판매가격은 1봉지당 4천원으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쌀과자와 같은 가격이지만 유기농 쌀을 재배하는 과정부터 쌀과자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도했다.
- '21세기 농부는 좋은 상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판매전략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한 그는 바이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블로거·카페 등을 통한 체험단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홍보에 나섰다.
- 특히 유아 전문 블로거들이 상품을 체험하고 다른 엄마들에게 입소문을 내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체험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상품 노출이 많이 되고 더불어 홍보가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마케팅 전략이다.
- 그는 전국의 국민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접근이 쉽다는 온라인 직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100%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 또 고객들의 가입경로와 필요 상품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 이 같은 노력으로 우수고객이 1천~3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 2013년 조수입 2억원을 창출했다.
- 박 대표는 앞으로 유아를 가진 20~30대 아이엄마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되 쌀과자'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유기농 쌀과자', '유기농 아기과자', '친환경 아기과자' 등의 키워드로 검색광고를 실시하고 온라인마켓 입점과 아이엄마들의 인터넷 카페 등에 체험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 또 내년에는 자연이 주는 깨끗함과 살아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담은 유기농 현미와 백미를 이용한 '유기농 씨리얼'과 '유기농 누룽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 출처 : 남도일보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친환경 기능성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 신청기한 : '15. 4. 10.(금)한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500백만원(지특 250, 시군비 50, 자담 200)
- 사업내용 :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지원
- 지원자격 : 10ha이상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생산·유통하고자 하는 단체

◆ '14년산 콩 보급종 추가신청 접수

- 신청기간 : 3. 23. ~ 4. 10.
- 신청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대상품종 : 대원, 태광, 풍산나물 등 7개 품종 700톤
 - 장류 및 두부용 : 6개 품종(대원, 태광, 우람, 대풍, 천상, 연풍), 610톤
 - 콩나물용 : 1개 품종(풍산나물), 90톤
- 공급가격 : 17,400원/5kg
- 종자공급 : 4. 1. ~ 5. 10.까지(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

◆ '14년산 벼 보급종 개별신청 접수

- 신청방법 : 국립종자원홈페이지(www.seed.go.kr) 및 전화신청
- 대상품종 : 황금누리, 추청, 삼덕, 남평, 일미 등 13품종 1,200여 톤
- 종자공급 : 종자대금 입금 후 택배를 통해 농가에 공급 또는, 직접 방문 수령

<벼 개별신청 공급기관 안내>

공급기관	품종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종자관리소	대안 추청	경기도 평택시	031-229-5936
충북지원	대안 추청	충북 제천시	043-643-4065
강원지원	오대, 운광, 대안	강원 홍천군	033-433-2515
충남지원	황금누리	충남 아산시	041-540-4112
전북지원	황금누리	전북 정읍시	063-530-3670
전남지원	소다미, 호평, 황금누리	전남 함평군	061-323-0702
경북지원	일품, 삼덕	경북 안동시	054-858-5703
경남지원	남평, 일미, 진수미, 추청, 칠보	경남 밀양시	055-355-2578

◆ '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3. 26. ~ 4. 15.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된 가축 사육농가
- 사업비 : 206억원(보조금 6, 융자금 200)
- 지원기준
 - 보조지원(준업농~전업농 규모)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이차보전(기업농규모) : 융자 8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주간

전남농업정보 28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